



정신질환의 증가추세와 보험산업

이해량 연구원

- Gen Re는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증가추세이며, 보험산업은 정신질환의 증가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함.¹⁾
-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7억 2천만 명 즉, 전 세계인구 10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신질환 관련 의료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임.
 - 정신질환에는 우울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조현병²⁾ 등이 있으며, 2010년 기준 세계 장애보정손실연수(DALYs: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³⁾ 증가의 원인 중 7.4%를 정신질환이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WHO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정신질환 관련 지출 비용은 고소득 계층을 기준으로 연간 1인당 2010년 약 45달러였으며, 2014년 약 59달러로 증가함.⁴⁾
 - WHO는 2030년에는 심장병 다음으로 우울장애가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과 총 진료비도 2014년 약 5,327억 원으로 2012년 4,969억 원에 비해 증가하였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우울장애를 겪는 사람은 2013년 약 66만 5천 명으로 2009년 약 55만 6천 명과 비교하면 약 19.6%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6%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는 2014년 기준 약 10만 4천 명으로 2010년 9만 4천 명과 비교하여 연평균 2.6% 증가하였으며, 조현병 관련 진료비는 2010년 2,836억 원에서 2014년 3,291억 원으로 늘어남.

1) Gen Re(2015. 8. 27), "Mental health-A challenge for insurers".
 2) 정신분열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상, 환청, 환각,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과 질환임.
 3) 장애보정손실연수는 질환에 의한 조기사망으로 잃어버린 손실 수명년수와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생활한 년수에 장애의 중증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한 장애생활년수를 합한 년수를 의미함.
 4) WHO(2015. 7), "Mental health atlas 2014".

■ 정신질환은 보험상품의 직접적인 보장대상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은 자살률, 사고율, 질병 발생률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험산업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병임.

-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높은 자살률과 사고율, 소화장애 및 수면장애 등 관련 질환 발생률, 흡연, 알코올 남용, 불법약물, 정신과 치료 부작용 등 많은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사망률은 높을 수밖에 없음.
 - 20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살한 사람 중 90% 이상이 극심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음.
- 정신질환의 증가는 사망률 및 질병 발생률 증가와 연관성이 높아 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 개발 및 보험 가입 심사 시 정신질환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전문 인력 보충, 경험적 데이터 수집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정신질환에 의해 유발되는 사망률 및 질병 발생률 등 정신질환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시해야 함.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허용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지난 8월 금융감독당국은 가벼운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을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정신질환은 그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정신질환 관련 전문 인력의 보충이 필요함.
-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 부족으로 보험회사들이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명확한 손해를 및 보험가격 등을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신질환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함.

(Gen Re, WHO 등)